Q 수도 서울을 북한군에게 빼앗긴 과정은?

A 6월 26일 13시경, 의정부가북한군에게점령됐다. 전방에서 철수한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창동을 중심으로도봉산-수락산을연결하는새로운방어선을구축하기로했다. 그러나27일 오전, 아군부대들이미처 방어진지를편성하기도전에 40여 대의 전차와자주포로증강된적의 공격을받게 되자 방어부대들은창동지역을포기하고 미아리 · 태릉일대로분산 철수했다.

미아리 방어선

그 무렵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미아리 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부대를 수습한 제7사단은 제5사단과 함께 정릉 - 미아리 - 청량리를 잇는 ‘ 미아리 방어선 ’을 구축하고, 두 사람이 방어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각각 지휘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곳의 지형이 방어에 유리하므로 도로만 차단하면 적 전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27일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공격이 재개됐다. 야간이었지만 전차를 앞세운 적은 미아리 삼거리에 설치해 둔 장애물을 쉽게 밀어제치고 길음교를 통과해 서울 도심으로 진출했다. 적 전차가 시내로 진

6월 28일 북한군 105전차여단의 뒤를 따라 시가행진으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북한군 보병부대

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아리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국군 장병들은 다음날 날이 밝은 후 적의 습격을 받고 분산철수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서울 진입

미아리 방어선의 붕괴는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 방어선의 붕괴였다. 미아리 방어선 붕괴로 적 전차가 시내에 진입함에 따라 서울 시가지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시내 곳곳에 차량·목책 등으로 긴급히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지만 효과적인 저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쟁시 서울에서 시가전을 실시하는 방안은 원래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6월 28일 날이 밝으면서부터 서울은 북한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생각해 봅시다!!

1. 서울 방어를 위한 방어선은 어떤 지역이었으며, 어떻게 방어했나?
2. 미아리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지 못했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